

새로 발견된 盧以漸의 《隨槎錄》에 대한 書誌的 研究

: 1780년 同一 使行時 燕巖 朴趾源의 《熱河日記》와 比較

南 權 熙*

<目 次>

- | | |
|------------------------------|-----------------------|
| I. 머리말 | V. 《熱河日記》의 編纂과 異本 |
| II. 書誌事項 | VI. 《隨槎錄》과 《熱河日記》의 比較 |
| III. 日記의 著者 盧以漸에 대한
확인 과정 | VII. 맺음말
《隨槎錄》의 발췌 |
| IV. 《隨槎錄》의 構成 | 參考文獻 |

I. 머리말

1. 존속 경위

이 資料는 필자가 80년도 후반의 우연한 기회에 시중에서 입수하여 所藏하고 있던 책으로 당시 公州의 盧氏 집안의 다른 자료와 함께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기체의 燕行記錄인 점과 燕行의 출발일자와 도착일자가 燕巖 朴趾源이 使行한 기록과 같아서 잠정적으로 《熱河日記》의 다른 筆寫本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1) 公州地域에서는 여기에 언급된 盧氏 집안을 盧將軍家라고 부른다고 함.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중에서 4권 2책의 無憾窩集을 저술한 盧以亨(1694-1760)은 盧以漸의 族兄이 되며 그에게 經書등 문장을 가르친 사람으로 日記 10책이 通度寺로 또 戶牌를 비롯한 일부 문건이 개인소장으로 흩어져 있었다.

2 圖書館學論集

그러나 최근 이 자료를 자세히 검토할 기회가 생겨 날짜별 기록과 수록된 내용을 비교하여 본 결과 기록된 내용중에는 같은 燕行 使臣의 수행원으로 燕巖에 대한 기록이 수차례 나오고 날짜별 수록의 내용도 날씨나 특별한 사건의 전개등은 《熱河日記》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상황 묘사나 행적이 달리 전개된 곳이 많음을 볼 수가 있었다.

따라서 이미 알려져 있는 燕巖의 《熱河日記》가 아니라면 著者는 누구이며 언제 작성된 것인가를 먼저 밝히고 燕巖과 같이 수행한 사람이 서로 다른 기록을 남겼다 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대체로 두 자료를 비교하여 그 행적이나 사물에 대한 시각의 차이와 같은 使行 時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술의 관점 등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 내고 등장 인물의 비교, 날짜의 대조, 책에 대한 서지적 분석 등을 통하여 이 자료가 가지는 國文學, 漢文學, 書誌學的인 의의를 찾아 보았다.

또 지금까지 알려진 연행록중에서 같은 연행에 대한 서로 다른 기록이 발견된 예가 없으므로 이 《隨槎錄》은 《熱河日記》의 새로운 해석과 보충을 하는 데 주요한 자료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째, 같은 시기의 使行에 관련한 다른 기록으로서의 비교자료가 되며, 둘째 朴趾源의 《熱河日記》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셋째 朝鮮後期 기행문학 자료의 추가와 대외관계 인식의 재조명과 두 자료의 尊華的, 批判的 경향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선행 연구와 관련 자료

이 연구의 대상자료가 처음 알려지는 까닭에 직접적인 선행 연구는 없으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朴趾源의 《熱河日記》와 같은 使行의 기록이므로 간접적인 연구로서 비교에 있어서 참고가 될만한 연구로서 몇가지를 들 수가 있

다.

첫째, 金明昊(1989)는 《熱河日記 研究》에서 문학적인 형식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書誌의 內容으로 저술 과정과 異本の 대조를 언급하였으며, 둘째 姜東樺(1988)은 《熱河日記 研究》에서 시대 인식과 문체 의식을 다루면서 書誌面에서의 저작 방법과 異本の 編次, 構成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 韓國漢文學硏究會(1988)는 《韓國漢文學硏究：燕巖朴趾源先生 誕生250週年 紀念 特輯號, 11輯》에서 각종 자료에 나타난 인물 교류 등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으며 崔康賢(1981) 《한국 기행문학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朝鮮時代를 거쳐오는 동안 中國과 많은 使臣이 왕래하였으며 특히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새롭고 큰 나라의 신문물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적은 기록들은 일정량의 분야를 이룰만큼 많아서 현존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볼 때 朝天錄類라고 말해지는 明代의 사신 기록이 40여종 남아 있으며 소위 燕行錄類²⁾라고 불리는 700회 정도였던 清代의 사신 기록중 전존이 확실한 것을 합하여 100여종³⁾ 넘게 남아 있고, 1996년 1월에 李元禎의 언행기록도 大邱에서 발견⁴⁾, 추가되었다. 대체로 이와 같은 언행록에 실린 내용은 路程, 北京滯留, 聞見, 학문적인 교류 등이며, 형식상으로는 기행과 聞見의 느낀 바를 서사시 또는 서정시의 漢文體 형태로 전하거나 일부 한글본도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기록은 관련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번역이 되어 일부가 대표적으로 전하고 있어서 國譯 資料⁵⁾로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
- 2) 이러한 명칭은 高麗末에서는 點馬行錄, 奉使錄 등의 이름으로 對明 使行이 표현되었으며 對日本 使行은 東槎錄 등 東, 海, 口과 같은 글자가 포함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 전혀 다른 별개의 서명으로 표현된 것도 있다.
 - 3) 崔元九, 언행록선집 해제, 국역언행록선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6, p. 5.
 - 4) 中央日報, 1996년 1월 18일자 “조선 현종때 언행록 발견.”에 의하면 1660년 李元禎이 謝恩使의 書狀官으로 5개월간 중국을 다녀온 기록이며 72장의 韓裝本이라 소개하고 있다. (김정원씨 소장)
 - 5)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언행록선집, I-X I, 서울, 동화, 1976-1977.

4 圖書館學論集

書名	著者	書名	著者
漂海錄	崔溥	燕行紀	徐浩修
朝天記	許	燕行記事	李押
東還封事	趙憲	燕行錄	金正中
燕行錄	權	戊午燕行錄	徐有聞
朝天航海錄	洪鳳漢	燕臺再遊錄	柳得恭
朝京日錄	金堉	薊山紀程	미상
燕途紀行	李滄	心田稿	朴思浩
燕行錄	崔德中	赴燕日記	미상
燕行日記	金昌業	燕轅直指	金景善
庚子燕行雜識	李宜顯	夢經堂日史	徐慶淳

이 밖에도 부분적으로 번역이 되어 개별적으로 전하는 것도 많으나 여기서는 예만을 보였다.

또 英祖39年(1763)에 日本으로 갔던 통신사가 남겼던 본 연구 대상의 책과 제목이 완전히 같은 《隨槎錄》이 남아 있으나⁶⁾ 이는 사신을 따라 갔다는 의미만 같을 뿐 中國과 日本이라는 큰 차이점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외시켰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隨槎錄》이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특히 朝鮮後期 문학과 실학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熱河日記》와 기록상으로 비교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로 판단되어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著者를 밝히는 것은 물론,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고, 책에 대한 서지적 분석을 통하여 이 자료의 의의를 찾아 보았다.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6권, 성남, 동연구소, 1991, p. 503.

II. 書誌事項

이 책은 表紙에만 書名이 《隨樣錄》으로 墨書되어 있다. 서명으로 판단할 때 그 내용은 中國으로 사신을 갔던 사실을 정리한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고 版種은 筆寫本이며 1책(82張)으로 크기는 32.3 × 21.3cm의 五針眼 東裝本으로 편철되어 있다.

筆寫에 사용된 종이는 발 폭이 2.1-1.8cm의 楮紙이며 표지에 사용된 菱花紋樣은 작은 연꽃과 잎이 어울어진 전형적인 18세기 이후에 유행되었던 문양이다. 또 시기와 관련하여 볼 때 앞 표지의 襟接에 사용된 인쇄물은 金堉이 仁祖22年(1644)에 편찬한 類書인 《類苑叢寶》의 ‘卷之四十四’의 版心이 後刷되어 나타나므로 이로 미루어 筆寫의 시기를 짐작하면 역시 빨라도 18세기 이후일 것은 분명한 것이다. 뒷 表紙에 사용된 襟接紙는 算術의 計算 內容이 적힌 文書이다.

本文에 들어와 그 시작 부분에는 卷首題 등이 없이 ‘庚子 五月’의 항부터 바로 시작된다. 筆寫의 형식은 한 면에 13行, 한 줄에 24-25자로 쓰여졌으며 부분적으로 수정한 표시와 수정의 경우 처음의 글자를 도려내거나, 添紙하여 다시 보충한 부분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

특별히 설명을 추가할 경우 天頭, 즉 본문의 상단부분에 細字로써 설명을 부기하고 본문중에서도 내용이 불명확한 것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는 細注를 달고 있다. 또 첫장의 하단에는 方形的 所藏印이 찍혀 있으나 印面이 흐린 관계로 판독되지 않는다.

이 책은 筆寫의 상태로 보아 草稿는 아니며 초고에 따라 재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8월 22일자 博明과의 대화를 기록한 글에서, ‘此下字未詳’ ‘此下似忘未書’라는 본문속의 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초고를 보면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정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정리 방법은 같은 류의 《熱河日記》에서도 그 자신이 기록한 草稿를 정리하면서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그 編次를 고치고 순서를 다시 정리한 예가 〈黃圖

6 圖書館學論集

紀略》이나 〈像葉記〉 등에 자주 언급되고 있다. 즉 당시의 燕行錄을 남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Ⅲ. 日記 著者인 盧以漸에 대한 확인 과정

이 자료의 외형적 기록이나, 내용상의 수록내용을 검토하여도 日記를 쓴 저자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누구의 저작인가를 알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내용 분석과 관련 기록을 살펴본 결과 몇가지 사항으로 정리하여 단계별로 저자의 범위를 축소할 수가 있었으며 결국 모든 것이 일치하는 인물로 확정이 가능하였다.

1. 관련기록

먼저 기록된 날짜와 관련하여 일치하는 것은 正祖4年(1780), 즉 乾隆45年の 燕行으로 음력 5월 25일 進賀겸 謝恩을 위하여 別使가 北京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 使行의 목적은 高宗의 70회 탄신을 축하하고 皇帝가 내린 詔書와 北京 숙소의 화재사건에 대하여 황제가 책임을 면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겸하고 있었다.

당시 使行에 참가한 구성을 《實錄》⁷⁾과 《熱河日記》를 통하여 정리하면,

正 使 : 朴明源	副 使 : 鄭元始	書狀官 : 趙鼎鎮
三使軍官 : 朴來源, 鄭 珏, 盧以漸	御 醫 : 卞觀海	
譯 官 : 洪命福, 趙明會, 趙達東	馬 頭 : 張福, 昌大	

과 같이 이루어져 이 중의 어떤 사람이 《隨槎錄》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7) 正祖實錄, 4年 庚子 3月 己亥, …朴明源爲進賀兼謝恩正使 鄭元始爲副使 韓光近爲書狀官 尋病遞以趙鼎鎮代之…

이 책의 6월 24일자 기록에서 압록강을 건너면서 관계된 참고 기록을 책의 상단 여백에 첨기하여 두기를 도당한 사람이 270명, 말이 194필이라 하였으니 이 일기를 남길 수 있는 대상이 될 인물은 대단히 많은 편이나 문장과 학식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면 위에서 예시한 사람 중 馬頭 등을 제외한 10명의 범주내 일 것으로 판단된다.

2. 본문 내용의 분석 결과

저자의 확인을 위하여 본문중에서 관련된 인물과의 연계와 본인에 관련된 기록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월 25일의 기록에서 朴稚繼 兄弟(9월 25일에도 편지왕래의 기록이 있음)와 왕래가 있고 26일에는 坡州의 馬山에서 세상을 떠난지 5년이 지난 친구 朴士綱의 묘에 참배하고 있으니 이 두 사람을 확인 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추가된 기록이 부족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6월 1일에는 通引 禹龍得, 5일에는 通引 金仁澤(監營 冊房에서 일한 적 있음)과 6월 9일에 洪部將, 馬頭로서 6월 6일에 渠果라는 인물도 등장하고 있다. 또 10월 26일 돌아올 때 坡州와 高陽에서 만난 林重遠은 저자가 部官으로 있을 때의 동료였다.

셋째, 7월 11일 李씨 성을 가진 一品民官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姓은 盧이며 같이 온 사람은 鄭씨로 역시 進士라 하였으므로 그 역시 進士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넷째, 8월 10일 兵部員外郎 博明과의 대화에서 博明이 관직과 나이를 묻자 “余 曰鄙人年六十一, 三十七參陞國庠後以蔭補”라 하여 燕行 당시 61세의 나이였으며 37세때 蔭職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저자는 盧씨이며 당시 61세로 進士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 姓名의 확인

뿐만 아니라 8월 10일에는 이 일기를 쓴 사람은 兵部員外郎 博明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서 俞彦述이 書狀官으로 왔을 때의 日記에서 博明의 학술과 문장이 대단히 높다는 글을 읽고 꼭 만나기를 원하였던터에 마침 만나게 되어 趙主簿 明會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博明이 우리나라 詩文을 많이 수집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詩를 화답하여 보니 華音과 서로 통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글을 써서 관직명을 물어 보아 博明이 兵部員外郎임을 알았고 다시 答書로 唐代에는 臺閣이었으나 지금은 어떤 것이냐하고 물으니 武庫郎官이라 대답하여 주었고 中華의 道學과 四書, 人物에 대하여 서로 많은 지식을 주고 받았다.

이 중 8월 22일의 기록에서 燕巖 朴趾源과 관련한 기록이 있어 員外郎 博明이 찾아 왔을 때, ‘…내가 곧 나가 보았다. 燕巖이 뒤이어 왔다. 博이 말하기를…’에서 燕巖의 이름이 등장하므로 분명한 동 시기의 같은 使行에서의 일원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또 같은 날 博明과 같이 中國의 道學과 四書, 學者 등에 대하여 問答을 계속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인물 한 사람의 등장으로 盧氏姓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 때 博의 처조카 되는 黃氏 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 왔다. 나와 서로 읊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博은 우리 軍事에 대하여, 黃은 道에 대하여 잘 모른다 하였으나 華音을 몰라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博은 글로 써서 ‘黃이 말하기를 朴公은 高明하고 盧君은 성정이 깊고 차분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봄의 화려함과 가을의 충실함이 두 사람에게 비유된다’고 전하였다.

여기서 한 사람 즉 朴公은 燕巖이고 盧君은 使行의 인물들중에서 판단할 때 三使軍官 盧以漸인 것이다. 다만 盧君이라고 한 것은 자기의 日記이기 때문에 검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볼 때 이 글을 쓴 저자는 淸의 관리와 詩를 주고 받고,

앞선 書狀官의 日記를 마음대로 볼 수 있었고 中國學者와 더불어 道學을 논하는 정도였다면 학문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른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가 이 자료를 수년전에 구할 때 公州의 盧氏 門中에서 구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었으므로 筆寫의 원저자는 盧以漸으로 판단된다.

4. 《熱河日記》에서의 확인

앞에서는 원자료에서의 가능성으로 판단한 저자로서의 盧以漸에 대하여 朴趾源은 활자본 《燕巖集》중 《熱河日記》의 卷15, 第12張 뒷면에서 黃金臺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盧以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盧君以漸 在國以經行稱素嚴 於春秋尊攘之義 在道逢人 無論滿漢 一例稱胡 所過山川樓臺 以其爲腥膻 之鄉 而不視也…

즉 그는 국내에 있을 때 經術과 行으로 알려졌으며 또 春秋의 중국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격하는 대의에 엄격하였으므로 길을 오르면서도 사람을 만나면 漢, 滿을 구분하지 않고 되놈이라 불렀다. 또 거처온 산천은 누른 냄새가 나는 고장이라 하여 구경도 하지 않았다고 燕巖은 그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술하였다.

그러나 그는 古蹟중 黃金臺, 射虎石, 太子河 등 이름이 틀린 것을 반드시 과고 들어 찾아내었다. 또 黃金臺란 본디 臺가 없는 것이고, 盧以漸은 몽고사람 博明으로부터 얻었다는 ‘長安客話’ 기록중 초록한 것을 燕巖에게 보여 주었다. 이에 燕巖은 노는 날 틈을 타서 盧以漸과 함께 東嶽廟의 연극구경을 가다가 만난 凌蓑軒이란 자가 고적구경 가기를 청하므로 盧以漸과 함께 황금대를 찾아가 보니 황폐한 흙 둔덕에 지나지 않았다는 기록에서 燕巖이 그와 함께 행동을 자주 같이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이와 같은 《熱河日記》의 기록에서 盧以漸에 대한 평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가 博明과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본 자료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그 밖에 盧以漸에 대한 기록이 여러 곳에서 산견되고 있어서 이를 정리하면,

- ① 6월 24일: “盧參奉(以漸 上房裨將)은 帖裏를 입었을 때보다 훨씬 우람스러워 보인다.” 또 첩리는 방언으로 天翼이라 하고 裨將⁸⁾은 우리 국경 안에서는 천익을 입었다가 강을 건너면 夾袖로 갈아 입었던 옷이다.
- ② 7월 11일: 商樓筆談: 저녁에 朴來源, 周主簿, 盧參奉이 부사가 지은 七律에 次韻하여 시를 읊고 있었다.
- ③ 8월 5일: 使行이 熱河로 황제를 비러갈 때 “卜君과 盧參奉以漸, 鄭進士 珪, 趙學東 등은 西館에 남게되어 관문 밖에서 손을 잡고 작별하였다.”

에서 상방의 비장으로 역할을 하는 등 注나 본문의 여러 곳에서 盧以漸의 행적을 확인할 수가 있다.

5. 榜目과 族譜의 記錄

이상에서 확인된 盧以漸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물로서의 전기적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博明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던 당시 61세와 37세때 관직에 나갔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먼저 司馬榜目類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崇禎三丙子式年司馬榜目》 즉 英祖32年(1756)의 進士 三等 합격자 명단중의 제12張 뒷면에 “幼學 盧以漸은 字는 士鴻이며 庚子生이다. 本貫은 萬頃이고 公州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武科出身의 盧彥駿이다. 嫡兄은 以復이다”⁹⁾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다. 이 기록에서 출신은 武人 집안이며 또 그 자신은 庶子出身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萬頃 盧氏의 족보를 확인하면 高麗 明宗때의 克清이 萬頃君으로 봉해진 것으로부터 17世 후손이며 개별 인물로서 소개되기를 盧以漸은 號를 秋山

8) 조선시대의 관리로 監司, 留守, 兵使, 水使 등의 지방장관 및 中國使臣을 수행하던 武官으로 지방장관이 임의로 임명하였던 직책이다.

9) 國學資料院編, 司馬榜目, 五卷: 自1756年 至1774年, 서울, 同院, 1990. p. 64.
《崇禎三丙子式年司馬榜目》英祖32年(1756) 進士 三等 …幼學 盧以漸 [字] 士鴻 庚子[生]. 本[貫] 萬頃 居公州 父武科出身 [盧]彥駿 慈侍下 上行 嫡兄[盧]以復…

이라 하고 府使를 지냈다¹⁰⁾고 하였으나 다른 자료들에서는 號가 楸山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誤記라고 판단된다.

현재로서 盧以漸의 傳記에 관련된 가장 많은 기록을 수록한 것은 《萬頃盧氏世譜》로 이 책의 제6권 제5장 앞면에 略傳¹¹⁾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折衝公派의 후예로 字는 士鴻, 號는 楸山으로 肅宗 庚子(1720)에 태어나 英祖 丙子(1756)에 進士를 하였으며 문장과 학행이 뛰어나 官은 西部奉事 通訓大夫 同副丞旨 寧越府事 長陵參奉을 지냈다.

성품은 溫雅하고 기개는 뛰었으며 학식은 經, 禮, 文에 모두 통하여 歐, 蘇와 나란히 할만하다.

선비들의 신망을 받아 이름은 中國에 떨치고 胡人들이 경탄해 마지 않아 그의 詩律을 읊었다. 남긴 遺稿로는 21권이 있으며 집에 보관되어 있다. 戊申年(1788) 5월 1일에 세상을 떠으며 묘는 盤村里 翰林谷의 乾坐로 되어있다. 부인은 竹山安氏 通德郎 安僞(父는 府事 安薩集, 祖는 佐郎 安廷煜)의 딸이며 같은 해 12월에 세상을 떠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中國에까지 그 詩文을 떨쳤다는 것은 바로 使行을 통하여 中國 學者들과의 교류를 언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족보나 다른 전기자료를 이용하여 편찬한 盧氏 門中の 《盧氏偉蹟史》¹²⁾라는 자료에는 본 자료와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전하고 있다.

첫째, 盧以漸은 三義士 應의 玄孫으로 肅宗46年(1720)에 출생하여 正祖12年(1788) 향년 69세로 세상을 떠났다.

둘째, 族兄인 無憾窩 盧以亨에게 經書와 禮書를 배워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또한 孝悌도 돈독하였다.

셋째, 벼슬은 나이 36세로 늦은막에 初試에 급제하여 奉事に 이르렀다.

네째, 正祖4年(1780)에 燕巖 朴趾源과 함께 중국으로 들어가 큰 나라의 문물과

10) 韓國姓譜編纂委員會編, 韓國人的 姓譜, 4권 서웅, 正祐社, 1987, p. 89.

11) 이 《萬頃盧氏世譜》의 자료는 盧以漸이 살았던 公州에 현재도 花樹會의 일을 맡아 보고 있는 盧勳鍾氏(公州市 牛城而 東谷里 261번지)가 직접 자료를 복사하여 제공한 것이다. 이 기회에 紙面을 이용하여 감사를 드린다.

12) 盧氏偉蹟史編纂委員會編, 盧氏偉蹟史, 서울, 盧氏花樹會 中央會, 1988, pp. 288-289.

실정을 살피고 돌아와 《隨槎錄》, 《觀北錄》, 《南遊錄》 등 20여권의 저서를 남겼다.

이 기록중에서 그가 남긴 저서중에 이미 본 연구의 대상인 《隨槎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 족보를 편찬하던 당시의 집안에서는 그의 저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특히 燕巖과의 같은 使行을 기록하고 있으니 본 자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어떠한 연유로 이 자료들이 흩어지게 되었던가는 알 수 없다. 또 함께 기록된 《觀北錄》의 경우, 실물을 보지 못하여 알 수 없으나 《隨槎錄》과 깊은 관련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隨槎錄》에서 언급된 中國 문물에 대한 기록과 여행기를 적은 《西館問答》은 나타나지 않으니 전체 20여권의 저술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크며 별도의 자료로 미공개인채 개인자료로서 死藏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6. 地誌 및 기타 자료

그 밖에 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참고할 만한 기록으로는 公州의 역사와 지리를 다루고 있는 地誌類에서 출신으로 구분하여 蔭仕, 뛰어난 문장으로 詩家 등의 항목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다. 즉,

(1) 《公山誌》¹³⁾, 1859년경, 권5, 제40장앞.

…盧以漸 萬頃人 進士 奉事 號楸山 玉河館三題詩板 華人傳誦有遺稿…

(2) 《公州誌》¹⁴⁾, 권5. 蔭仕條 : 위의 (1)과 같은 내용

(3) 《朝鮮寶輿勝覽》¹⁵⁾, 忠淸南道, 公州郡, 제41장앞. 詩家

…盧以漸 字士鴻 號楸山 遺逸(세상을 모르고 지내는 선비) 以復弟 英祖朝進奉事 學窺經禮 文并歐蘇 從聘使 累入中國 詩客振華夏 有遺集…

13) 韓國人文科學院編, 朝鮮時代 私撰邑誌, 15, 忠淸道(2), 서울, 동원, 1989, 영인본.

14) 韓國學文獻研究所, 邑誌, 8 : 忠淸道, 2,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4, p. 63.

15) 韓國人文科學院, 朝鮮寶輿勝覽, 1 : 忠淸道, 1, 서울, 동원, 1993, p. 297.

따라서 위와 같은 직접, 간접의 모든 자료를 종합할 때 저자는 盧以漸이며 三義士 應의 玄孫으로 1720년에 출생하여 1788년 향년 69세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武科出身의 盧彦駿이며 嫡兄은 盧以復으로 그는 庶子出身이었다.

族兄인 無憾窩 盧以후에게 經書와 禮書를 배워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고 벼슬은 36세로 늦으막에 初試에 급제하여 奉事에 이르렀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서는 正祖4年(1780)에 燕巖 朴趾源과 함께 중국으로 들어가 큰 나라의 문물과 실정을 살피고 돌아와 《隨槎錄》, 《觀北錄》, 《南遊錄》등 20여권의 저서를 남겼다. 당시 나이는 61세로 燕巖의 44세보다는 17살이나 위였다. 큰 벼슬은 하지 않았고 英祖때 進士에 나아가고 奉事의 벼슬을 하였을 뿐이며 학문은 비교적 높고 中國에 대한 동경이 강하였던 사람이었다.

또 남긴 遺集中 그의 詩文은 여러 곳에 남아 있고 《隨槎錄》에서도 여러 사람에게 많은 시를 지어 주고 있음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 그의 출신이 庶子이며 武人이었던 까닭에 燕巖보다 17살이나 연상이면서도 燕巖이 《熱河日記》에서 盧君이라 칭하는 등 下待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다. 그의 평가에 있어서도 燕巖은 그가 대의만을 중시할 뿐 중국의 문물을 무시한다고 하였으나 《隨槎錄》을 검토하면 자세한 소개와 심지어 西天主堂까지 들어가 보려는 적극성을 지니기도 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IV. 《隨槎錄》의 構成

1. 《隨槎錄》의 체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 시작은 卷首題 없이 바로 날짜 별로 시작하여 5월의 출발로부터 10월의 도착까지를 일기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그 날짜별 정리는 다음과 같다.

庚子 五月	25일부터 29일까지
六月	1일부터 28일까지
七月	1일부터 30일까지
八月	1일, 6일부터 29일까지
九月	1일부터 30일까지
十月	1일부터 27일까지 ¹⁹⁾

위의 날짜별 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8월의 2, 3, 4, 5일을 제외하고 거의 출발부터 도착까지의 빠뜨린 날짜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일기 부분외에 이 자료의 卷末에는 일기체가 아닌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별첨의 자료를 추가시키고 있다.

- ① 〈自義州至燕京路程記〉 3張
- ② 〈與博詹事書〉 1張半 : 兵部員外郎 博明을 盧以漸이 알게된 동기와 그의 文章, 學問에 대한 칭송을 하고 도움이 될 좋은 글을 내려달라는 부탁의 글
- ③ 〈西館問答序〉 1張 : 燕巖 朴趾源과 燕京에서 9월 3일 天地之運轉을 이야기 하면서 전한 글
- ④ 〈班禪始末〉의 일부 : 〈熱河日記〉에도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등이 차례로 덧붙여 수록되어 있다.

이 중 〈與博詹事書〉는 8월 22일 兵部員外郎 博明과 만나 經書와 道學에 대하여 시대별 변천과 가장 이름난 학자를 평하는 등 몇 차례의 만남을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 부탁하는 글로써 작성된 것이다. 그 글에서 말하기를, 구석진 나라에서 태어나 中國의 웅장한 산천을 한번 보기를 원하였고 더불어 中華의 진실된 君子를 만나 교유하기를 원하여 고명한 博明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8월 22일의 마지막 단락에서 博明에 대한 평가를 하기를,

19) 正祖實錄, 4年 10月 戊寅, …回還 書狀官趙鼎鎭 進聞見事件 一熱河…

“…經義는 실로 정확하지도 자세하지도 않으며 그 사람됨은 재주는 많으나 매번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때 처음의 몇 글자만 써 보일 뿐이다. 燕巖과 대면하여서도 역시 물음이 많았다. 좌우에서 호응하여 답할 때 잘못된 곳도 많았다. 그렇지만 박식함은 실로 보통의 선비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고 하여 어느 정도의 비판적인 시각도 보이고 있다. 또 燕巖과 관련된 〈西館問答序〉는 9월 1일에 禮部로부터 使行이 황제가 있는 密雲에 가야한다는 명을 받았으나 그는 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던 때에 쓰여진 것이다. 다음 날인 2일에도 혼자 처량함을 느끼고 자기의 처지를 詩로써 읊었으며 3일에도 시를 읊고 저녁에 燕巖이 찾아와서 天地之運轉을 이야기 하였다.

…연암이 하늘, 해, 달은 轉動하며 땅 역시 轉旋한다고 하니 나는 朱子의 설을 지키면서 그 움직이지 않음을 다투어 말하였다. 연암의 이야기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나 독특하고 묘한 이론에 빠져 있으므로 〈西館問答序〉를 써 주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전통적인 주자학을 고수하면서도 盧以漸은 새로운 시대적인 흐름과 사상을 무작정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방편으로 새로운 사상을 인정하였던 것이니 즉, 燕巖의 학식과 그 새로운 이론을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니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전통적인 이론을 부득이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9월 3일에 燕巖에게 써 주었던 〈西館問答序〉¹⁷⁾가 《隨槎錄》의 권말에 수록되어 이를 참고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7) 《隨槎錄》卷末 〈西館問答序〉

上之謂窮格者 無係髮實 得之妙而 稱鑽古人〔 〕上字 自以爲乎 紙上之語 是古人之糟 已膠固乎 此而不得於 言語文字之外者 是又糟之糟 何於胎而者 目未嘗見 口聞人口如銅鑿之鑿 鑿而得其聲 盲聞鐘聲 而謂之口也故 唯明者 不然其言也 出於〔腦〕而 不出於〔 〕〔 〕於舌 其解也 從於思而 不從於耳 見人之所 不見 究人之所 不究是 可謂超卓 自得者而 問或其言 矛盾於 前人之說 亦不害 其各爲一義 萬 華〔 〕 獨非聖賢嗜乎

* 燕巖朴公 卓犖偉人也 結髮爲文章 其言 出入 於秦漢間 宋明以下 未嘗捷齒 華擊聞于 國中 洛之士大夫 爭慕之 贈其文而 誦之者甚多 一口念有 不豫色〔 〕曰科典文 名之也 吾寄於身名 又寄乎吾 吾身之不久而 終 歸於 壤泯滅而 況其寄所寄乎 遂謝學業

* 焚其所爲文〔 〕徐言隱 於金州之燕巖山中 喪葛不能易蔬〔 〕屢空而 家擘無咸 戚色婆娑 野〔 〕爭席 於田翁社老 之間而 自得〔之無〕充如也 嘗曰世之人 以知己爲幸而 吾以不知己 爲幸 公贊纓胃也 磨利光登啟 王廷劄 步問事而 關窮山 味人之所 不味不似

…선비가 묘를 얻는 것은 옛사람의 칭송하는 것으로 긍지를 삼는 것이며 글이란 옛 사람들의 정신으로 바탕된 것이다. 애꾸눈의 사람이 해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해가 구리쟁반 같다하므로 쟁반을 두들겨 그 소리를 맹인에게 들려주면서 해라고 하였다. 오직 깨친 자의 말 역시 그러하여… 생각을 따를 뿐 말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 앞서 보고 연구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을 때 이를 탁월하다는 것이며 간혹 그 말이 옛사람의 이야기에 모순된 바가 있어도 해가 되지 않으면 각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연암 박공은 뛰어난 사람이라 문장은 진한송명을 드나들고 나라중에서도 그 평판이 높으니 모든 사대부가 다투어 공경하고 그 문장을 베껴 모방하고 외우는 자가 대단히 많다.

내가 이제 평생토록 이름에 힘들었으나 오래지 않아 마치게 되는 데 하물며 더 수고로울 것 있겠는가. 그러나 연암은 드디어業을 버리고 글을 불 태우고 金州의 燕巖 계곡에 숨어 스스로를 지켰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를 아는 것을 행이라 하였으나 나는 내 자신 모르는 것을 행으로 알고 선비의 갑옷처럼 여기는 바이다. 이런 저런 것을 알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어찌 배운 바가 없어서 그러하겠는가.

일찌기 中華를 한번 보려고 이번엔 대행을 수행하여 여러 곳을 거쳐 중화를 보았으니 장관이라 하지 않겠는가. 매번 나갈 때마다 만약 이를 보지 못하였으면 평생이 헛수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은 수려한 풍채로 술 마시고 서양금과 노래를 들으며 호방하고 신기한 말로써 좌우를 놀라게 하니 대단한 기상을 가지고 있다.

지난 밤 이야기한 天地日月星辰의 運轉과 四海六合은 그 말이 신기하고 너무 넓어 옛 사람으로 부터 없던 이야기라 놀랍지 아니한가. 내가 들었던 것보다 그 뛰어난이 가상하니 이를 적어 둔다.

이 〈西館問答序〉는 9월 13일에 날씨가 추워 나갈 수가 없으므로 〈西館問答序〉를 작성하고 또 皇城의 풍속, 物態 등 보고 들은 것을 상세하지는 않으나 기록하였으므로 중복하여 기록하지 않는다하고 집의 제도, 수레제도, 모자, 의복, 음식,

* 此易彼者 豈無所養而 然耶 嘗欲一見 中華 今夏 隨人行 人燕 訪卒表 登北嶺廟 東臨 大瀛海 歷山關 吊金臺而 遍遊 皇京 過雲州 出古北巖沙漠之極 周遊四…吾之意 豈不壯哉 每出而〔 〕輒曰 若不見中華幾乎 虛度一生 中華之士 有學問文章者 一見 公未有顛倒於〔 〕公長身大而看秀而 髣髴有古人風儀性嗜酒 激琴彈 西洋琴 使人歌而 聽之豪談雄辯 驚動左右 神采凜然 有捕龍中搏虎豹氣像焉

* 昔之夜 與不 論天地日月星辰之轉運 四海六合八來之遠 而 其言新奇宏博聞 前人之所未聞 願不偉歟 雖出有實 於吾之所聞者 而嘉其超然 獨出於〔 〕狗之外 遂識其言 而綴之

과일, 琉璃廠, 冊肆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으므로 〈西館問答〉이라는 글을 따로 써서 풍물기행을 쓸 것으로 계획하였거나 아니면 당시 이미 쓰여지고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여기서 西館이란 8월 1일의 기록에 의하면 朝鮮의 使行은 본디 玉河館에 들었으나 도중에 南館으로 바뀌었다가 1779년의 冬至使行에서 하인이 불을 내어 다시 개축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어느 재독의 집을 使行이 머물도록 고쳐 사용한 장소이다.

2. 燕巖 《熱河日記》의 체제

《熱河日記》의 기본 敘述體制는 일기 형식을 근간으로 한 燕行錄이지만 서울에서 출발하여 되돌아 올때까지의 부분만 일기체로 서술되어 있고 北京에서 체류하며 관광하는 시기는 雜錄의 형식으로 처리 되어 있다. 또 北京에서 조선으로 돌아 오기까지의 과정은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형식과 수록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압록강을 건너 北京과 熱河를 거쳐 北京으로 되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수록 : 渡江錄, 盛京雜識, 駙汎隨筆, 漠北行程錄, 太學留館錄, 還燕道中錄
- (2) 熱河를 방문하였을 때의 티베트 관첸 라마에 관한 내용 : 黃教問答, 班禪始末, 札什倫布
- (3) 中國 사대부와 나눈 筆談의 기록 : 忘羊錄, 鶴汀筆談
- (4) 등장 인물의 사전 소개 : 傾蓋錄
- (5) 熱河 체류시의 각종 見聞 정리 : 行在雜錄, 山莊雜記, 幻戲記, 避暑錄, 口外異聞
- (6) 北京 체류시의 각종 見聞 정리 : 黃圖紀略, 謁聖退述, 像葉記, 銅蘭涉筆, 金蓼小抄

(7) (5)와 (6)의 중간: 玉匣夜話

V. 《熱河日記》의 編纂과 異本

현재까지의 이 분야 先行研究들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熱河日記》는 분량과 기술내용으로 보아 단시일에 저술된 것이 아니라 오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異本들 사이에는 내용상의 차이가 적지 않다. 각 異本들의 수록 내용 비교에 대한 것은 姜東暉에 의하여 정리된 바가 있다.

셋째, 《熱河日記》의 저술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단계: 1780년 중국 여행 당시 현지에서의 記述로서 날짜별로 적은 비망록의

존재, 중국인과 나눈 筆談의 草稿, 創作文의 작성

2단계: 초고를 중심으로 北京에서 朝鮮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日記體의 형식을

탈피하여 귀국후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다. 《審世編》 등은 여행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忘羊錄》과 《鵠汀筆談》을 교열하고 나서 序文格으로 추가 저술된 것이다.

3단계: 《渡江錄序》의 끝에 ‘崇禎156年 癸卯 洌上外史 題’라는 기록에 의하여

1783년경 탈고 되었으리라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金明勳은 《職齋集》에서 1828년 翼宗이 박규수에게 《燕巖集》을 진상하도록 명한 것에 의거하여 최종적인 정리는 1820년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완성된 최종원고는 燕巖의 손에서 직접 校閱되어 公刊되지 못하였으며 그가 죽은 후 家人들에 의하여 生前의 글이 수집되어 《燕巖集》으로 정비될 때 《渡江錄》이하 총25편의 체제를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1901년에 金澤榮이 간행한 《燕巖續集》에서는 전체가 24권이라고 하였으나 현존하는 異本으로 판단할 때 完帙의 경우 26권으로 되어 있다. 또 《過庭錄》에서는

25卷이라 하는 등 編卷의 分合과 加減에 따라 달리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넷째, 《熱河日記》는 본디 定本이 없었던 관계로 후대로 오면서 많은 傳寫本이 있고 그 編次의 특징은 筆寫本일 경우 적어도 1-9篇의 가감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책을 정리하면서 筆寫者나 編纂者의 오류와 의도적인 刪削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燕巖의 玄孫인 朴泳範씨가 소장한 燕巖의 저술에는 《燕行陰晴》이라는 책이 있고 그 내용은 1780년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 자료가 《熱河日記》 중 일기체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다섯째, 이와 같은 여러 판본을 간행방법이나 편차로 구분하여 보면 활자본으로 간행된 것은 光文會本(1911)이 11권 1책으로 朴榮喆本(1932)이 17권 6책으로 간행되었다. 또 필사본류로는 李家源本(간년미상)이 16권 2책, 10책, 19권 1책의 세 종류가 있으며, 國會圖書館本(간년미상)이 24권 11책, 奎章閣本(간년미상)이 26권 10책, 서울대본(간년미상)이 10책, 忠南大本(간년미상)이 26권 12책, 臺灣本(1956)이 26권 6책 등으로 내용은 서로 대동소이한 같은 계열의 필사본으로 분석되어 있다. 다만 판본마다의 약간의 異同이나 내용상의 변화는 姜東燁(1988)의 연구에서 잘 분석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研究에 의하면 筆寫本은 國會圖書館本, 忠南大學本, 全南大學本 등의 내용이 충실하며 그 내용중에서 〈天涯結鄰記〉, 〈熱河宮殿記〉, 〈熱河太學記〉, 〈段樓筆談〉 등은 목차에만 보이고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異本 系列을 정리하면 《熱河日記》는 忠南大學本이 가장 초고본에 가깝고 改作本에서는 1932년 朴榮喆에 의하여 新式活字本로 간행된 《燕巖集》의 일부인 3, 4, 5책이 《熱河日記》로서 가장 정비된 판본이며 全南大學本은 1956년에 영인된 臺灣本 계열의 개작본을 참조하여 만든 것으로 개작의 범위가 크다. 또 朴榮喆本은 가장 널리 유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초고본 계열에 비하여 개작된 부분이 많고 오류도 심한 편이다.

개작본 계열은 당초 燕巖의 소탈한 표현이나 생생하게 묘사된 부분과 당시의 反淸 분위기 등 저촉될 내용을 고치고 지나치게 해학적이거나 소설적인 취향이 들어난 귀절들이 수정되어 있다.

VI. 《隨槎錄》과 《熱河日記》의 比較

이미 앞서의 書誌와 體制面에서 검토한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隨槎錄》은 燕巖의 《熱河日記》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록된 내용면에서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같은 점

1) 燕巖과 같은 시기의 燕行 記錄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實錄의 기사라든가 본 《隨槎錄》과 《熱河日記》의 내용 등에서 확인된다.

2) 일치하는 날짜에서는 날짜별 날씨의 기술과 큰 事件이나 특수한 기록은 서로 일치하고 있다.

① 6월 28일

《隨槎錄》 : 安市城은 우리나라 嶺南 某縣에 있는 〈千字文〉의 언문 주석에서 ‘鳳’자를 ‘安시鳳’이라 하였으니 이 성은 鳳凰山에 있으므로 이름을 고쳐 安市라 하였다.

《熱河日記》 : 고구려의 옛 방언에 큰새를 ‘安市’라 하니 지금도 우리말에 봉황을 ‘황새’라 하고 뱀을 ‘배암’이라 함을 보아 봉황성을 안시성으로 蛇城을 白巖城으로 고쳤다는 전설이 맞는 것 같다.

② 7월 22일

《隨槎錄》 : 물이 제멋대로 흐르고 말 허리까지 차올랐다. 제대로 건너는 것은

요행이며 동행중 조생이란 자가 말에서 떨어져 물속으로 빠졌다. 수 리를 떠내려가다가 병졸 羅道가 건져 올렸다. 병사들은 수영하여 건넜다.

《熱河日記》: 서장관의 비장 趙時學이 물에 떨어져 죽을 뻔하여 모두 놀랐다. 돈 주머니를 떨어뜨려서 ‘아이구 엄마’하고 울었다.

③ 7월 26일

: 雷首山에서 고사리 국을 먹음(사행들의 관습)

《隨槎錄》: 野鷄屯를 지날 때 폭풍우는 가히 평생에 잊지 못할 대단한 것이었다.

《熱河日記》: 비, 바람, 번개, 천둥으로 지척을 분별할 수 없고 가끔 번갯불에 비치는 데를 보니 盧군이 새파랗게 질리어 두 눈을 꼭 감고 숨이 곤장 터질 것 같다.

3) 등장 인물이 같다.

예를 들면 6월28일 姜永泰(열하일기에서는 泰를 台로 적고 있음), 29일의 御醫 卞主簿의 馬頭인 岱宗이 日記에서는 宣川의 官奴라고 기록되어 있고 7월 2일의 周主簿에 대하여 日記에서는 ‘나의 삼종제, 이름은 命新, 상방의 비장이다’라는 주석을 붙이고 있다. 그 밖에 여러 인명이 등장하여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등장인물’에서 언급하였다.

이미 8월 22일의 기록에서 燕巖과 博明이 盧以漸과 함께 만나는 기록이 있지만 燕巖은 별도로 博明을 만나기도 하여 《熱河日記》의 〈萬國進貢記後識〉에서 몽고 사람 博明에게 물으니 野婆(날원송이의 일종)에 대한 내력과 설명을 들었다고 하므로 盧以漸이 칭송하던 博明을 만났음을 알 수가 있다.

4) 날짜별 도착하고 숙박하는 지명이 서로 같다.

본 연구의 대상본은 비록 《熱河日記》와는 차이가 있지만 6월 1일부터 출발하여 8월 20일까지의 같은 날에는 날짜라든가 폭우로 진흙창의 거리와 강물 등이 붙어 고통을 받았던 과정은 전체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술이나 사실 보고는 차이가 많다. 그 밖에 매일 매일의 숙박한 장소와 거처온 노정에 대한 것은 《隨槎錄》이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2. 다른 점

1) 序文과 雜錄이 없다.

《隨槎錄》은 메모 형식으로 적은 초고를 바탕으로 날짜 위주의 전개를 하였기 때문에 異本이 많은 《熱河日記》처럼 몇 차례의 수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책으로서의 공개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盧以漸은 序文이라든가 다른 체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며 만약 공개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그가 본문에서 밝힌 《西館問答》이라는 기행문이 오히려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2) 출발 날짜와 도착 날짜 사이의 기록이 서로 다르다.

전체적인 노정은 서로 같지만 내용상에 있어서 《熱河日記》는 압록강을 건너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돌아오는 것도 압록강을 기준으로 中國측에 이르러 때까지만을 다루고 있어서 6월 24일에서 8월 9일까지의 기록이나 《隨槎錄》은 京城의 출발에서 돌아올 때의 弘齋院에 이르기까지 즉 5월 25일에서 10월 27일까지 전체의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雜錄 등 卷末 收錄의 내용이 다르다.

《熱河日記》는 형식상 北京에서 체류하며 관광하는 시기를 雜錄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체제에서 살펴 보았듯이 《隨槎錄》은 〈自義州至燕京路程記〉, 〈與博詹事書〉, 〈西館問答序〉, 〈班禪始末〉 등을 추록하고 있다.

4) 날짜별 내용에서 공식적인 使行的 移動 등은 같으나 보고 들은 事物이나 事件에 대한 해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 燕巖이 熱河까지 갔다는 것에 비하여 盧以漸은 燕京에 머물러 있어서 〈班禪始末〉등 熱河의 소식은 전언으로 들어 기록하였다. 즉 이러한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熱河日記》는,

- (1) 8월 10일에는 즉 熱河에 도착한 다음 날에 別宮인 避暑山莊으로 나아가 식전에 2-3품 대신과 반열을 같이 하라는 황제의 명에 감사를 드렸다.
- (2) 8월 11일에는 티베트 승려 관첸 라마를 만나라는 황제의 명령으로 예방하게 됨.

- (3) 8월 13일에는 避暑山莊에서 하례식에 참가하고 15일에는 熱河를 떠나 20일 北京에서 한달간 체류하다가 9월 17일 출발하여 10월 27일 京城에 도착하였다.

라 하였으나 《隨槎錄》에서는,

- (1) 8월 12일 熱河의 소식을 들으니 9일에 황제를 만나지 못하였다 한다.
- (2) 8월 15일 우리나라 서리와 같은 序班을 만나 熱河가 어떤 곳인가를 물으니 황제의 피서산장이라 하였다.
- (3) 8월 19일 열하의 사신이 돌아온다고 하여 수 리를 영접하러 갔으나 내일쯤 도착한다는 소식을 받았다.
- (4) 8월 20일 돌아 온 행차에게 열하의 소식을 물으니 가는 길은 험난하고 피서산장은 황금기와로 덮힌 곳이라(생략) 등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 (5) 8월 28일 맑음. 예부에서 우리 사신에게 密雲에 있는 황제를 만나도록 허락하여 내일 출발하기로 하니 감격스러우나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서 탄식하였다.
- (6) 8월 29일 아침 식사후 사행이 출발할 때 周主簿와 함께 몇리를 길가까지 나가 배웅하였다.

등의 기록에서 燕巖은 熱河를 갔다온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날짜별 移動 거리가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하루에 이동한 거리나 지나온 지역에 관한 사항이 특별히 고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나 두 자료를 비교하면 《隨槎錄》의 기록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3. 기본적인 배경 의식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燕巖은 신문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盧以漸은 尊華의 의식은 강하나 연암이 보기에는 대의명분 즉 孔孟을 숭상하고 淸을 배타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燕巖과의 대화나 일기 전체에서 다루어진 행적을 보면 신문물에도 대한 많은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 또 燕巖이 평가한 대로 사물이나 地名 등 어느 한가지 빠뜨리지 않고 살펴보는 치밀

성이 이러한 일기를 남기도록 하였을 것이다. 비록 燕巖과의 천문학 대화에서 전통 주자학적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헛된 설로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특한 연구도 인정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특히 9월 4일에는 西天柱堂을 두 차례나 들어가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것과 〈西館問答〉이라는 책을 써서 中華文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러나 燕巖과 같은 비판과 현실참여와 같은 안목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두 사람의 극명한 비교는 다음의 몇 곳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隨槎錄》

8월 8일 : 맑음, 같이 간 모두가 雜技로서 소일하나 나는 본디 投錢과 바둑을 싫어하였으므로 聯句 詩를 한, 두 수 지었고 明나라의 패망원인에 대하여 기록한 일종의 野史인 〈樵史〉를 아는 사람에게 빌려 읽었다.

7월 2일 : 비, 일행이 모두 우울하였다. 모두 함께 投錢으로 소일하였다.

《熱河日記》

7월 1일 : 큰비, 鄭進士, 周主簿 등과 투전판을 벌여서 소일할 작정이었으나 그들은 나더러 솜씨가 서툴다고 한 몫 넣어주지 않고 그저 앉아서 술만 마시라 한다.

7월 2일 : 결방에서 투전판이 벌어져 떠들고 야단이다. 나도 뛰어 가서 그 자리에 끼어 연거푸 다섯번을 이겼다. 어제의 수치를 씻을 수 있었다.

위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유교관을 고수하는 사람과 새로운 이상과 자유분방한 선비의와의 차이를 볼 수가 있고 전체적인 기술에 있어서도 盧以漸은 사실과 노정중심으로 기술한 반면 朴趾源은 사건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예로는 燕巖이 沈由朋의 집에 걸린 〈虎叱〉을 베껴쓴 7월 28일은 高麗堡와 沈由朋 집에서의 일을 담고 있으나 盧以漸은 비바람 몰아친 후 진흙길 20리를 가는 동안 말에서 내려 걸으니 발을 빼내지 못하여 애를 먹었고 또 말이 빠져 전복되어 일어나지 못하여 하인 십여명이 겨우 한나절만에 빠져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적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바로 사실적인 일기와 문학적, 사건중심적인 일기와의 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登場 人物과 關聯 資料

1) 등장 인물

《隨槎錄》에 등장하는 인물은 朝鮮과 中國을 구분하면 대단히 많으나 사건 하나 하나와 견문에 관련된 인물을 제외하고 盧以漸의 使行에 참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5월 25일 ; 朴稚繼 兄弟 (9월 25일 기록) 와 왕래
 26일 ; 朴士綱 (坡州 馬山에서 세상을 떠난지 5년이 지난 친구의 묘를 참배)
- 6월 1일 ; 通引 禹龍得, (10월 24일에도 언급)
 5일 ; 通引 金仁澤 (監營 册房에서 일한 적 있음)
 6일 ; 馬頭 渠果
 9일 ; 洪部將,
 12일 ; 郭山 南右寬
 13일 ; 本倅 李文燮,
 14일 ; 本倅 心泰
 18일 ; 鄭季明
- 6월 27일 ; 周主簿 命新, 상방비장
 29일 ; 御醫 卜主簿 觀海, 馬頭 岱宗, 대종은 宣川의 관노로 변주부의 마두임
- 7월 17일 ; 軍官 金弘澤, 金弘喆 (注書) 의 동생
 28일 ; 牢子 羅道
- 8월 10일 ; 首譯 趙主簿 明會
 21일 ; 鄭進士 昌後
 25일 ; 同行 譯官 劉漢光
 25일 ; 賚咨官 金在協을 鳳凰店에서 만남
 27일 ; 同半 內院醫 朴清如가 아프다.
- 10월 20일 ; 馬頭 文尚五
 26일 ; 本倅林重遠

이 중에서 周主簿 來源에 대하여 《熱河日記》의 6월 24일자 注에 의하면 그는 이름이 命新으로 상방의 비장이라 하고, 鄭進士 珏 역시 上房의 裨將이라고 하였

다. 馬頭인 岱宗은 《熱河日記》 6월 25일에서는 戴宗이라 하며 宣川의 관노로 御醫 卞主簿의 馬頭라 하였다. 7월 13일에는 참외를 속아서 산 후에 朴淸如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에서, 또 7월 15일 中安浦까지 30리를 卞主簿와 같이 구경하러 간 이야기 등에서 동일한 인물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그 밖에 《熱河日記》의 7월 27일에는 위에서 나오지 않은 盧以漸의 馬頭인 太輝라는 인물에 대한 언급이 있어,

…노참봉의 마두인데 초행일 뿐더러 위인이 경망하여 齋庄을 지나다가 대추나무가 비바람에 꺾이어 담 밖으로 넘어진 것을 보고는 그 열매를 따먹고 배알이를 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으며 鄭進士 昌後, 周命新은 《熱河日記》의 8월 5일 熱河로 들어갈 때 副使의 裨將으로 선발되었음을 예로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즉 처음 압록강을 건넌 270명의 인원중에서 여러 사람이 서로 관련을 지으며 두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이 두 자료를 합하여 당시의 使行記錄중 인물관계를 再構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관련 자료

(1) 《松溪集》의 인용

이 책은 麟坪大君이 지은 책¹⁸⁾으로 《隨槎錄》에서 다음과 같은 인용부분이 발견된다.

- ① 7월 8일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鶴野가 9천리”라 하나 저자는 천리밖에는 되지 않으므로 어디에 근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함.
- ② 7월 18일 禁州衛의 松山과 杏山을 지나면서 그 곳이 明清의 격전지임을 알고 청나라 사람이 우리 나라의 精砲 수천개를 빌려가서 松山之捷을 거두었으니 감개무량하였다고 함.

또 같은 기록이 《熱河日記》의 같은 날에도 같은 책의 다른 부분이 인용되어 있어서,

18) 熱河口記, 7월 17일 甲午: 仁祖때 丙子胡亂이 끝난 뒤 鳳林人君과 함께 볼모로 잡혀 갔던 세째 아들.

…청병이 송산을 에워쌌을 때에 孝宗大王께옵서 세자의 몸으로 인질이 되어 청의 진중에 계시더니 잠깐 다른 곳으로 幕次를 옮긴 사이에 寧遠摠兵 오삼계가 거느린 만명의 기병이 포위를 뚫고 달려 나오니 애초에 막차이던 곳이 바로 그 길목이었다…

등에서 보는 예와 같이 동일 장소나 동일의 역사적 기록에 대한 것은 서로 朴趾源과 盧以漸이 서로 인용한 근거가 같은 것이 자주 보인다.

(2) 《書狀時日記》의 인용

이 책은 判書 劉彥述이 1749년 冬至使의 書狀官으로 中國을 다녀오면서 남긴 기록으로 《隨槎錄》의 8월 10일에 《書狀時日記》에서 博明을 뛰어난 학자라 평하고 있으므로 盧以漸도 “博明은 학식과 문장이 뛰어나 뒤에 한번더 만나고 싶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3) 《閱相國日記》

《隨槎錄》의 8월 13일에 圓明苑을 설명하면서 그 구조에 대하여 雍正때에 만든 것으로 궁궐은 西山에 비하여 작으나 경치가 뛰어나며 西苑에 큰 못이 있어 길이가 200여리이나 남쪽에는 南海子가 160여리가 되어 漢때의 上林苑과 같고 사냥터가 있다는 《閱相國日記》를 인용하고 있다.

(4) 《醫經問答》 卞季涵 著

8월 9일 博明과의 대담시에 사실의 정확성을 이야기 하면서 秦과 漢代 醫方의 祖를 정한다든가 泰山과 華嶽에 대하여 전하는 이야기도 당시의 長安의 이야기는 분서갱유로 불타버리고 입으로 전하여 온 것인 까닭에 博明과의 이야기도 그러한 가감을 한 후에 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인용하고 있다.

5. 冊과 관련된 記錄

여기서는 《隨槎錄》 전체에 걸쳐 中國의 冊文化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이나 사대부인 盧以漸이 관심을 가진 책에 관련된 기록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7월 27일 : 豐潤縣에 들어 王씨집에서 묵었다. 이 곳은 명나라 때에는 사대부가 많아서 지금까지 문인과 碩士등이 있으나 살길이 없어 책을 찍어내어 팔아서 업을 삼고 있다.
- 9월 13일 : 연경의 서점에는 책이 쌓여 있으나 선비나 양반만이 살 수 있고 잡인이 사사로이 사면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 9월 14일 : 조주부가 《奎璧經書》를 사고 《孫志集》 板本이 대단히 좋았으나 너무 비싸 살 수가 없었다.
- 9월 21일 : 豐潤城 ; 漢人들이 대부분은 책의 간행을 業으로 하고 책이 대단히 많고 가격은 연경보다 훨씬 싸다.
- 9월 23일 : 永平城 ; 역시 서책을 파는 사람이 많았다. 연경의 가격과 비교하여 아주 싼 가격이었다. 사고 싶은 《맹자》가 있었으나 사지 못하였다.

대체로 中國의 책중 사고 싶은 것은 많았으나 가격이 비싸서 살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당시 使行을 통하여 中國의 신문물을 접하는 좋은 기회였던만큼 책의 구입은 使行에서의 필수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燕巖의 《熱河日記》에서도 판매되는 책목록이 나오나 燕巖 역시 살 책은 별로 마땅하지 않다고 하고 있으며 盧以漸도 같은 처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6. 班禪始末의 比較

이 내용은 《熱河日記》에도 같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어 이를 비교한 결과 《熱河日記》는 ‘班禪始末’의 항목아래 班禪始末, 班禪始末後識, 仲存評語로 나뉘어져 있으나 《隨樣錄》에는 비슷한 내용 전개를 하되 반드시 같지 않아서 日記보다는 축약된 형태를 띤다. 단 처음의 두 줄은 거의 같고 이하 나머지는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燕巖이 쓴 班禪始末도 부분적으로는 어떤 기록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VII. 맺음말

이상과 같이 새로 발견된 《隨槎錄》의 형태와 원문에 대한 書誌的 분석을 《熱河日記》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隨槎錄》은 《熱河日記》를 쓴 朴趾源과 같은 시기에 使行을 갔던 일기체의 燕行錄이다.

2) 형태적인 면에서 筆寫本이며 원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정리한 쓴 것이다.

3) 저자는 燕行 당시 61세의 盧以漸이며 그의 本貫은 萬頃 盧씨로 37세인 1756년에 進士 3등으로 과거에 올라 參봉을 지냈음을 밝혔다.

4) 盧以漸에 관한 기록은 《熱河日記》에서 7-8차례에 언급되고 있고 燕巖에 의한 평가는 비록 철저히하지만 대의를 너무 중시하는 전통 朱子學에 매인 사람으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燕巖에게 주었다는 〈西館問答序〉와 일기의 기록으로 볼 때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인정을 동시에 갖춘 사람으로 평가된다.

5) 두 자료의 비교에서 대체로 같은 날짜의 같은 이동의 내용이 있으나 사물과 사건에 대한 접근점은 盧以漸이 儒敎的인 입장을 고수한 반면 燕巖은 자유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6) 旅程의 기록에 있어서 《熱河日記》는 압록강을 넘어서부터 熱河를 거쳐 다시 압록강에 돌아올 때까지의 기록이며 《隨槎錄》은 漢陽에서 출발하여 다시 弘濟院을 거쳐 慕華峴으로 돌아올 때까지이나 熱河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7) 燕巖과의 관계에서 〈西館問答序〉가 만들어지고 博明과의 만남에서 〈與朴詹事書〉가 쓰여졌고 《熱河日記》에 언급된 〈班禪始末〉의 초록을 책말에 붙이고 있다.

이와 같이 《隨槎錄》은 같은 시기의 使行에 동시에 참여한 기록으로서 비교할 수 있음을 물론, 특히 燕巖과 《熱河日記》를 보충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國文學, 漢文學, 書誌學 등 韓國學 분야 연구에 一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1. 姜東燁(1988) 熱河日記研究, 서울:一志社
2. 金明昊(1990) 熱河日記研究, 서울:창작과 비평사
3. 김영(1995) “과정록 해제, 사본” 洙上古典研究, 제8집
4. 閔丙秀(1978, 겨울) “朴趾源文學의 研究史的 檢討,” 韓國學報, 13집
5. 李家源 譯(1978) 熱河日記(上, 中, 下), 서울:大洋書籍
6. 李岩(1995) 燕巖 美學思想 研究, 서울:國學資料院
7. 李岩(1994) 朝鮮文學思想史研究, 서울:國學資料院
8. 李鐘周(1982) “熱河日記의 敘述原理,” 碩士學位論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9. 車溶柱 編(1984) 燕巖研究, 大邱:啓明大學校出版部
10. 崔康賢(1981) “한국 기행문학 연구 博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大學院
11. 韓國漢文學研究會(1988) 韓國漢文學研究, 11집; 燕巖朴趾源先生 誕辰二
五〇週年紀念 特輯號
12. 燕巖集, 卷之十一 ~ 十五, 別集 熱河日記
13. 국역 연행록선집,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76-1977.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Su Sa Rok : 隨槎錄》

Nam Kwen-Hee*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bibliographical analysis of the 《Su Sa Rok》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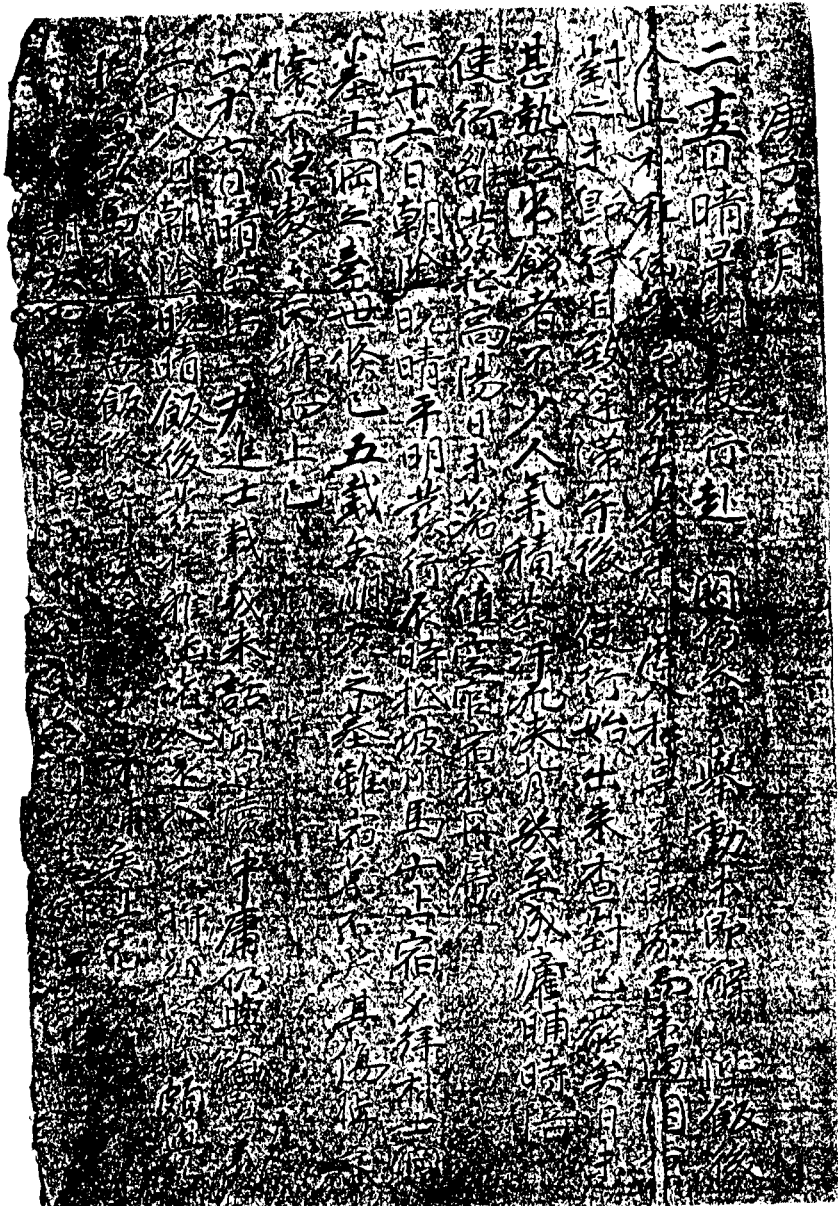
1)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related historical records, The author was found as No YiJeom(盧以漸) who lived in Kongju(公州) at the King JeongJo(正祖) period.

2) 《Su Sa Rok》was written about the same traveling of China at same time with Park JeeWon's(朴趾源)《YeolHaIlKi : 熱河日記》. The format of this materials was recorded everyday from leaving to arriving in Hanyang.

3) The result of comparison these two writings, the 《Su Sa Rok》 was described better on the view of traditional Confusianism more than the 《YeolHaIlKi》.

4) According to the study, 《Su Sa Rok》 is a new material to provide in the Korean Studies as Korean literature, history, bibliography etc.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yung Pook National University



〈第一張〉

西館問答序

士之譚窮拾者... 古人之精也... 固于... 不... 語... 之外者... 又精... 精... 亦... 也... 固... 不... 語... 之外者... 又精... 精... 亦... 也...

胎而眇者... 日也... 見人之... 說... 陳... 峯... 包... 濠... 之... 倉... 以... 所... 八... 胎而眇者... 日也... 見人之... 說... 陳... 峯... 包... 濠... 之... 倉... 以... 所... 八...

〈西館問答序〉